



세계관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김종철

“불가공약성의 추구”

(1) 포스트post + 모더니즘modernism

포스트모더니즘, 즉 ‘후기현대주의’라는 말에서도 알 수 있듯이 시기적으로 모더니즘 이후라는 의미도 있지만, ‘탈현대주의’의처럼 모더니즘에 반한다는 뜻이 강합니다. 실제로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1,2차 세계대전, 제국주의의 문제, 공해 문제, 인종차별과 부의 불합리한 분배라는 현실적인 문제가 모더니즘으로부터 야기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더니즘의 세계관 자체가 그릇되었다고 합니다.

(2) 우리는 어디에 사는가?

포스트모더니스트들은 모더니즘의 현전의 형이상학, 즉 언어와 개념에 의해 매개되지 않은 객관적으로 주어진given 세계, 정신 앞에 현전하는present 바깥의 세계에 살고 있다는 모더니즘의 주장이 허구라고 합니다. 또한 소박실재론, 즉 세계를 자율적이고 보편적인 이성이 투명하게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는 모더니즘의 입장 역시 거짓이라고 합니다. 마르크스, 다윈, 프로이트가 보였듯이 인간은 생물학적, 문화적, 사회적 조건과 분리되어서 세상을 인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개념, 언어 담론, 이야기, 전통 등을 통해서만 세계를 인식할 뿐이어서 우리는 세계에 대한 객관적인 지식은 가질 수 없고 단지 세상을 구성construction하고 해석할 따름이라는 것입니다.¹⁾ 더욱이 모더니즘의 현전의 형이상학 내지 소박실재론 속에는 이것만이 옳다고하는 전제주의적인 요소와 폭력성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폭력의 형이상학이라고 불러야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해체의 작업을 통해서 모던 시대에 적응하지 못하고 다르게 생각한다고 이단자 취급을 받은 소외된 자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실재라는 것을 우리가 구성한다고 할 때에는 실재를 보는 하나의 길만이 있는 것이 아니어서 다르게 보는 것이 틀리게 보는 것이 아니므로 다르게 보는 자에 대한 폭력과 억압이 없다는 것입니다.

(3) 우리는 누구인가?

이들은 실재가 인간의 구성물인 것처럼 이성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모더니즘의 주장 역시 진리가

이 문서는 라브리 웹사이트에서 내려받은 것으로, 개인 및 그룹 공부를 위해서만 인쇄, 복사, 배포 등이 허가되었습니다. 그 밖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별도의 허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라브리의 공식 입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This document was downloaded from L'Abri Korea. Printing and distribution are permitted only for study purposes. For all other uses, please obtain permission from L'Abri. L'Abri does not endorse the contents of this document.

아니라 그 시대의 담론이 만들어낸 허구라고 합니다. 또한 이성의 자충족성을 강조하는 모더니즘의 인간관이 인간에게 자유와 진보를 가져다 주기는커녕 오히려 이성을 충분히 활용할 수 없는 자와 이성을 가지지 못한 존재를 저인간(미개인, 중증 장애인 등)과 비인간(자연)으로 보고 그들에 대한 착취를 정당화하여 자유를 억압하였으며 심각한 생태학적인 문제를 야기했다고 비판합니다. 아도르노와 호르크하이머가 계몽의 변증법이라는 책에서 밝혔듯이 과학과 기술을 통해 세상의 모든 것을 인간의 마음대로 조작하려 했으나 역으로 인간이 조작 당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들은 인간의 본질을 이성으로 한정짓지 말자고 주장합니다. 누가 인간의 본질을 이성이라고 규정했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포스트모더니즘의 인간관은 모더니즘의 인간관 보다 그 자율성이라는 측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형태가 됩니다. 모더니즘에 의할 경우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었지만, '이성, 합리성'이 인간의 본질이라는 데에는 아무런 이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포스트모더니즘에 의할 경우 인간의 본질에 관한 제한은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이제 인간은 아무런 기준 없이 인간이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포스트 모던 자아는 초 모던 자아라고 볼 수 있습니다.

(4)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해결책인가?

모더니즘은 이성의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활동을 가로막는 전근대적인 유물인 전통, 미신 등이 인류의 추구하는 목표인 보편성과 진보를 방해하는 악이라고 하였지만, 포스트 모더니스트들은 인간은 각자가 처한 사회의 이야기(담론, 세계관, 혹은 전제)에 의존해서 사유하고 인식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또한 지식의 정당성을 신화나 전통, 종교등의 이야기를 통해 획득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생각한 모더니즘 역시 이야기 내지 신화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더니즘은 인류의 목표인 '진보'를 위해서 객관적으로 이성을 사용해서 이 세계를 잘 이해하고 잘 이용해야 한다고 하고 있는데, 왜 인류의 목표가 '진보'냐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아무런 근거 없이 모더니즘 자체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심각한 문제는 모더니즘이 보편성을 인류의 목표요, 인간이 가진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주장한다는 것인데, 포스트모더니스트들에 따르면 이러한 주장은 필연적으로 폭력적이고 전체주의적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보편적이라고 주장하기에 모든 사람은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서는 안되며 다르게 생각하는 자는 이단아로 정죄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들은 보편성의 추구 자체가 악이라고 규정하고 각 사회가 가진 나름대로의 다양한 세계관과 삶의 방식을 인정하고 그 세계관 사이에 불가공약성(incommensurability²⁾)를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문제의 해결책이라고 합니다.

<세계관으로서의 포스트모더니즘>

중요한 신념들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①어디에 사는가?	현전의 형이상학/소박실재론	구성주의
②누구인가?	자율적 인간	초자율적 인간
③무엇이 문제인가?	전통, 종교, 미신	보편성
④무엇이 해결책인가?	진보와 보편성	불가공약성

(5) 기독교적인 평가

포스트모더니즘의 등장으로 기독교는 적지 않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맹위를 떨쳤던 신학적 모더니즘인 자유주의의 몰락이 그것입니다. 그 외에도 인간은 일정한 세계관(종교적 헌신)을 가지고 사고한다는 깨달음이나, 하나님의 초월성에 대해, 만물의 다양성에 대해 그리고 인간의 유한성과 피조물성에 대해 자각이 있었다는 점에서도 그렇습니다. 자연에 대한 새로운 해석으로 인간의 청지기적 삶에 대한 재고가 있었던 점이나 공동체의 역할에 대한 강조 역시 포스트모더니즘의 유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상에 있어서 모더니즘의 극대화로 나아가면서 여전히 인간의 자율성을 철저히 고수하고 있는 것이라든지, 보편성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폭력적이라고 규정하는 태도는 기독교의 유일성(그리스도의 유일성)과 양립할 수 없는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보편화 할 수 없는 것을 보편화 할 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보편성 자체가 폭력적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
- 1) 무지개를 모든 문화가 7가지 색깔(빨주노초파남보)로 보는 것은 아니다. 문화에 따라 색깔 개념이 다르므로 무지개는 5개의 색깔이라고 하기도 하며, 6개의 색깔로 이루어졌다고 하기도 한다. 어떤 문화에는 승냥이라는 말이 있어서 늑대와 이리와 구분되는 승냥이를 구분해서 인식하지만, 승냥이라는 말이 없는 문화에 속한 사람들은 그것을 늑대나 이리에 편입시켜서 인식한다. 더운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눈snow의 종류가 몇 가지 안되나 에스키모인들은 수십 가지나 되기 때문에, 같은 눈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이다. 이처럼 언어, 세계관 담론에 매개되어서 우리는 사물을 인식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우리는 개가 짖을 때 '멍멍'으로 듣지만, 다른 문화에 사는 사람들은 '우프 우프'라고 듣는다. 그러나 실제로 개 짖는 소리는 그 둘과 비슷하면서도 전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엄밀히 말하면 우리의 말로는 정확히 표현할 수 없는데도 우리는 우리가 속한 문화의 언어 내지 개념을 매개해서 개 짖는 소리를 듣는다. 따라서 문화가 다르면 개 짖는 소리도 다르게 듣는다고 할 수 있다.
 - 2) 비트겐슈타인은 게임의 경우 게임마다(장기, 체스, 바둑, 오목 등) 서로 다른 규칙이 있고, 이 규칙들을 포괄하는 보편적인 규칙은 존재하지 않을 뿐 더러, 각 게임간의 규칙 중에 어느 것이 참된 규칙인지 알 수 없고, 어느 것이 더 우월한 규칙인지 비교하는 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언어/문화 마다 가지고 있는 고유 이야기/세계관도 그렇다는 것인데, 이렇게 어느 것이 더 우월한지 어느 것이 옳은지 말할 수 없는 성질을 불가공약성이라고 한다. 장기의 말마이 포처럼 장애물을 넘어가지는 못하지만, 체스의 knight는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체스의 규칙이 장기의 규칙보다 우월하고 체스만이 참된 규칙이어서 장기의 말마에도 이 규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넌센스라는 것이다. 각 놀이에 따른 고유한 규칙이 있고 그 규칙은 그 놀이 안에서만 의미를 가지고 참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하나의 세계관이나 담론은 그것이 적용되는 문화에서만 옳은 것이지 다른 문화에는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세계관의 차이를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말고 놀이처럼 대하라는 것이다.